

08 학교 생활 기록부

학년별 학생부 점검표

고1 · 고2 · 고3

- ◆ 이 자료는 **무료**입니다.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
- ◆ 법령과 학교가 발표한 요강만 정리했습니다. **예측하지 않습니다.**

CONTENTS

01	한눈에	2
02	학년별 점검표	3
03	학년별 점검표	4
04	한 장으로	5
05	자주 묻는 것	6

무엇이 들어 있나

- ◆ **고1·고2·고3 각각 여덟 가지** 점검표
- ◆ **3년 내내 같은 것 셋** — 제도가 바뀌어도 안 바뀌는 것
- ◆ **대입에 가는 칸과 안 가는 칸**을 나란히 놓은 마지막 표
- ◆ 전학하면 학생부가 어떻게 되는가 · 진로를 안 정해도 되는 까닭

01 · 한눈에

3년이 어떻게 쌓이나

학생부는 3년 동안 같은 칸이 세 번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년마다 볼 자리가 다릅니다**. 고1은 틀을 만드는 해, 고2는 깊어지는 해, 고3은 마무리하는 해입니다.

학년	이 해의 일	놓치면
고1	칸을 비우지 않는 것	3년 중 하나가 빕니다
고2	이어서 하는 것	줄만 남고 이야기가 없습니다
고3	확인하고 정리하는 것	고칠 시간이 없습니다

가운데 줄이 가장 값이 큼니다. 한 번 한 것은 줄이 되고 이어서 한 것은 이야기가 됩니다. 500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야기 쪽입니다.

이 편의 쓰임

앞의 일곱 편에서 칸마다 확인하실 것을 드렸습니다. 이 편은 그것을 **학년으로 다시 갈라 모은 것**입니다. 지금 **학년의 칸만** 보셔도 됩니다.

출처: 교육부훈령 제555호 및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기재요령(고등학교). 기재요령은 해마다 2월에 새로 나오고 초·중·고가 다르다. 그 해 요령을 확인해야 한다.

02 · 학년별 점검표

고1과 고2

고1 — 여덟 가지

- ☐ 학생부 II 를 한 번이라도 받아 봤는가
- ☐ 세특이 들은 과목마다 있는가
- ☐ 창체 세 칸 이 다 채워져 있는가
- ☐ 정규 동아리 를 정했는가 (자율동아리는 대입에 안 갑니다)
- ☐ 출결 에 미인정이 없는가
- ☐ 결석 증빙을 제때 내고 있는가
- ☐ 안 가는 칸(수상·독서·자격증)에 시간을 쓰고 있지 않은가
- ☐ 겨울방학에 한 번 볼 계획인가

둘째가 고1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비어 있으면 학년이 끝나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고2 — 여덟 가지

- ☐ 고1에 한 것을 이어서 하고 있는가
- ☐ 세특 내용이 과목마다 다른가
- ☐ 아이가 기억하는 일 이 적혀 있는가
- ☐ 고른 과목이 진로와 이어지는가
- ☐ 비교 칸 (공동교육과정·미이수)을 봤는가
- ☐ 봉사가 「(학교)」 인가
- ☐ 담임 선생님과 한 번은 이야기했는가
- ☐ 학기마다 학생부를 보고 있는가

첫째가 고2의 전부입니다. 고2는 새로 시작하는 해가 아니라 이어 가는 해입니다.

03 · 학년별 점검표

고3과 마감

고3 — 여덟 가지

- ☐ 고1·고2 것을 다시 읽어 봤는가
- ☐ 3년치가 한 줄기로 읽히는가
- ☐ 사실과 다른 자리 가 없는가
- ☐ 있다면 증빙 이 있는가
- ☐ 면접에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인가
- ☐ 출결 이 3년치로 어떻게 보이는가
- ☐ 지원할 전형이 학생부를 어떻게 보는지 확인했는가
- ☐ 1학기 안에 확인을 마쳤는가

여덟째를 지키십시오. 수시 원서는 9월이고, 그때 학생부는 이미 넘어갑니다.

3년 내내 같은 것

	무엇을	왜
1	수업에서 드러내기	남는 칸이 전부 수업 안에 있습니다
2	하나를 이어 가기	이어야 이야기가 됩니다
3	학기마다 확인하기	학년도가 끝나면 막힙니다

이 셋은 학년과 무관하게 같습니다. 그리고 제도가 바뀌어도 잘 안 바뀌는 것들입니다.

출처: 위와 같음. 전형별 반영 방식은 대학 모집요강을 확인하십시오.

04 · 한 장으로

무엇이 가고 무엇이 안 가나

대입에 갑니다	안 갑니다
교과 성적	수상경력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과목마다 500자)	독서활동
창체 세 칸 특기사항 (각 500자)	자격증 및 인증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300자)	자율동아리
출결	개인 봉사활동 실적
학교 계획 봉사	진로희망분야

왼쪽이 시간을 쓸 자리이고, 오른쪽은 아닙니다.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2019-11-28)에 따라 2024학년도 대입부터(졸업생 포함)

그리고 왼쪽은 전부 학교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표가 이 시리즈의 결론입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여덟 편을 다 읽으셨다면 학생부에 대한 불안이 조금은 줄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 시리즈에서 가장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학생부는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남는 것」 이라는 것입니다. 수업에서 한 일이 남고, 이어서 한 일이 이야기가 되고, 확인하지 않은 것은 그대로 굳습니다. 부모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셋째뿐이고, 그건 십 분이면 됩니다.

05 · 자주 묻는 것

학년별 준비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고1인데 벌써 진로를 정해야 하나요?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제도가 그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진로희망분야는 대입에 안 갑니다. 「장래희망: ○○」 한 줄은 대학에 보내지 않습니다.

가는 것은 진로활동 특기사항입니다 — 무엇을 희망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알아봤는가가 적히는 칸입니다.

그러니 고1에 필요한 것은 결정이 아니라 탐색입니다. 여러 개를 건드려 보고 그중 하나가 고2로 이어지면 그게 가장 좋은 모양입니다.

다만 과목 선택은 고1 가을에 해야 합니다. 진로를 못 정했다면 열어 두는 쪽으로 고르십시오 — 안 들으면 되돌리기 어렵고, 들었다 안 쓰면 잃는 것은 시간뿐입니다.

Q. 전학을 가면 학생부는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따라갑니다. 원적교가 재학 당시까지의 학생부 전산자료를 전입학하는 학교로 이송합니다.

그러니 전학 간다고 앞의 기록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출결도 학년 안에서는 전·후를 합산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전학 시기가 학기 중이면 그 학기 세특이 어느 학교에서 적히는지가 갈립니다. 짧게 다닌 학교에서는 적을 내용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목이 달라 이수가 어긋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교학점제에서는 이게 더 까다로워집니다 — 전학 전에 두 학교의 개설 과목을 비교해 보십시오.

학적과 내신 쪽은 따로 다룬 편(G6)이 있습니다.

한 줄로 남기면

고1은 비우지 않고, 고2는 이어 가고, 고3은 확인합니다. 그리고 3년 내내 같은 것은 수업에서 드러내는 일입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교육부훈령 제555호와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기재요령(고등학교)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형별 반영 방식은 대학 모집요강을 확인하십시오.